

## 기독교 진리관 소고\*

양성만(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논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철학의 진리관과 성경의 진리관을 비교해 보고 후자의 특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먼저 철학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진리관들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각각의 입장이 안고 있는 약점들을 지적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중요한 지식으로 여기는 것들은 개별적 지식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이다. 이런 진리를 설명하려면 일반법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법칙은 하나님의 작정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칙에 매이지 않고 법칙을 자유롭게 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이런 법칙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이 법칙을 바르게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진리 문제를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그 대표적인 몇 구절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진리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는지를 논의한다. 그 결과 우리는 철학의 진리관들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한된 의미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주제어 : 진리, 진실, 진리의 정의, 법칙 지식, 진리의 인격성, 기독교적 진리관

---

2009년 3월 2일 접수; 4월 9일 1차 수정; 4월 18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들어가는 말
- II. 일반 철학의 진리관
- III. 진리 개념의 요소들
- IV. 작정과 진리
- V. 진리이신 하나님
- VI.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진리가 무엇이나?"고 묻던 빌라도 앞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온 목적이 진리에 대해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또 이를 위해 생명의 희생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였다(요 18:37, 38). 우리는 성경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빈번하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한다.<sup>1)</sup> 진리 문제는 일반 철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 전통적으로 철학의 3대 분야는 인식론, 존재론, 윤리학이라고 인식되었으며, 진리의 문제는 인식론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진리관은 비단 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철학은 자기의 진리관의 기운을 일반 학문계 전체에 불어넣어 학문계 전체가 이 생기로 숨 쉬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는 신자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2)</sup>

기독교 신자는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또 우리가 생활에서 따라야 할 규범을 가르친다고 믿는다.<sup>3)</sup> 성경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어떤 문

---

1) 『스트롱의 성경색인』은 'truth'와 이의 변형어를 포함하는 구절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적어도 100회 이상 제시하고 있다(Strong, 1980: 1078-1080).  
2)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직접적으로는 이경직의 "기독교 진리론의 모색"에 의해 촉발되었다(이경직, 2004).  
3)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문.

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이 내용으로부터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은 수행하여 알 수 있게 한다.<sup>4)</sup>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진리를 성경이 명시적으로, 또는 필연적인 귀결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1+1=2'라든가,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이다.'와 같은 지식은 성경을 참조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 능력을 활용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자라면 무슨 문제를 생각하든지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나 필연적인 결론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창조주께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맡겨 준 내용에 대해서도 항상 계시를 통해 배운 진리에 비추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일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도 성경이 가르치는 명시적인 내용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철학의 진리관들과 진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관들, 진리 대응설, 진리정합설, 실용주의, 그리고 현대의 의미론적 진리론이 주장하는 각각의 내용과 그 한계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 이 진리관들이 함축하고 있는 진리 개념의 중요 요소들을 분석하여 일반법칙 지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진리 지식임을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다. 이 일반법칙 지식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IV절에서 작정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칙에 매이는 분이 아니므로 결국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논증한다.

요한복음 14:6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진리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진리를 먼저 성부에게 돌린다(요 7:28).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들, 그리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6절. 이 절은 자연의 빛과 기독교 신자의 사려분별(the light of nature and Christian prudence)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도 있음을 지적한다.

고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말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인 출애굽기 34:5,6의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우리의 이 결론을 아더 홈즈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입장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같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밝힐 것이다.

## II. 일반 철학의 진리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참된 지식일까? 그중에는 거짓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신념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일까? 철학에서는 이 문제를 진리의 정의(definition of truth) 문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답변이 진리대응설, 진리정합설, 실용주의 진리관, 의미론적 진리설 등이다.<sup>5)</sup>

### 1. 진리대응설

진리대응설은 우리의 신념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 또는 존재와 일치할 때 참이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용은 존재한다."는 신념은 거짓인데, 용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의 위는 네 개다."는 신념은 참인데, 실제로 소의 위를 해부해 보면 혹위, 별집위, 겹주름위, 주름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대응설은 아마도 가장 상식적이고 고전적인 진리관이라고 해야 할 것

---

5) 진리의 정의 문제는 지식의 정당화의 문제와 다르다. 전자는 진리가 무엇인냐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것이 참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는 전자이다(Moreland & Craig, 2008: 14, 21-22). 이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변들이 대응설, 정합설, 실용주의인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의미론적 진리설, 진리잉여론 등이 제시되어 논의된다. 그런데 진리잉여론은 '진리'라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서 진리론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이다. 이런 진리대응설은 플라톤에서 벌써 시사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식화되었다.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반대로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이다"(Aristotle, 1941: 1011b25). 스토아학과 철학자들과 토마스 아퀴나스나 오컴, 뷔리당과 같은 중세 철학자들, 데카르트, G. E. 무어 등의 근대 철학자들이 이 진영에 속한다(Simmons, 2005: 534-535).

이 진리대응설은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반론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된다.

첫째, 대응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도대체 한 주장 또는 명제가 어떤 방식으로 사실과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대응을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명제와 사실 사이의 대응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명제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과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자들이 서로 대응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요구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사람이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이었다. 러셀에게서 논리원자론을 이어받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논리원자론의 의미 이론, 소위 의미그림이론을 내놓는다(Wittgenstein, 1922). 이에 따르면 한 명제가 하나의 사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명제의 구성 요소(이름)들과 해당 사태의 구성 요소(대상)들이 서로 1:1로 대응하며, 명제의 구성 요소들이 그 명제 속에서 이루고 있는 구조(그림의 구조)가 해당 사태 속에서 사태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사태의 구조)를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명제들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한 명제는 가능한 사태들 중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태, 즉 사실을 표현하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명제가 사실과 대응한다고 할 때 그 대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정말 그림 보여주듯이 설명한 것이 아마 비트겐슈타인의 의미그림이론일 것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이 이론은 진리대응설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시

키는 언어가 어떤 것이어야 할지 그 조건은 제시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상 생활의 실제 언어가 어떻게 세계와 상관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설사 비트겐슈타인의 의미그림이론에 따르는 언어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만일 언어가 비트겐슈타인이 이해한 바로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면, 그래서 언어의 의해서 표현되는 세계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제시한 대로의 세계라면 논리 이외의 필연성은 부정된다(Wittgenstein, 1922: 6,37). 여기서 자연과학의 법칙 지식이란 자연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 사실을 표현해 주는 명제들의 통일적인 형식에 불과하게 된다(6.3-6.372).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이런 논리철학을 따라 '소위 자연법칙들은 자연 현상에 관한 설명'이라는 근현대인들의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6.371).

후에 비트겐슈타인 스스로 이 의미그림이론의 오류를 발견하고 포기하였다. 비트겐슈타인 이후에도 철학자들은 여전히 명제와 사실 사이의 대응을 설명하는 데 곤란을 느낀다. 최근 모어랜드는 현상학적 논증을 시도해 보지만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심스럽다(Moreland & Craig, 2008:135- 137).

둘째로, 대응 여부를 알려면 '사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에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파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관찰자의 상태, 관찰 상황, 또 과학 이론, 패러다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 문제의 신념을 사실과 비교하여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새로 획득한 신념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 2. 진리정합설

명제가 세계 속의 사실과 대응하기에는 명제는 사실과는 달리 지나치게 언어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명제와 사실 사이의 대응'이란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용인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명제와 명제 사이의 비교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단의 철학자들은 어떤 주장이 참이 되는 것은 그것이 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라고 인정되는 다른 지식과 정합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예컨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명제는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클리드 기하학의 다섯 번째 공리, 즉 '한 직선이 두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 그 두 직선은 그쪽에서 만난다.'는 공리에 의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참이다. 나는 내가 언젠가 죽을 존재라고 믿는데, 이 믿음이 참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런 사실의 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이라고 인정하는 다른 지식들, 예를 들면 '모든 생물을 사멸한다.'든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하는 확실한 지식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스피노자, 헤겔, 블란샤드(Bran Blanshard)와 같은 철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 정합설의 난점은 대응설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우선 정합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앞의 삼각형의 경우처럼 기존의 지식 체계가 새로운 지식을 함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sup>6)</sup> 이것은 너무 강한 정의일 것이다. 반대로 기존의 지식 체계와 새로운 지식이 서로 모순 없이 잘 양립할 수만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약한 정의가 된다. 모아랜드는 정합론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 철학자들 중 아무도 정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득력

6) 블란샤드가 여기에 해당한다(여훈근, 2000: 15).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Moreland & Craig, 2008: 140).

러셀은 기존의 지식과 정합할 수 있는 체계가 오직 하나임을 보장할 방법이 없으므로 정합설은 진리의 정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Russell, 1967:67).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가라면 지금의 세계와 잘 어울리지만 우리가 살아 온 실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텐데, 정합설의 기준을 따르자면 이 소설가의 이야기도 진리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합설이 작동하려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 기존의 지식은 그 이전의 기존의 지식과 정합하기 때문에 참이라고 인정되었을 것이고, 후자는 또 다시 그 이전의 기존 지식과 정합하기 때문에 참이라고 인정되었을 것이다. 이 계열의 어디엔가 처음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첫 진리는 어떻게 해서 참이라고 인정되었는가? 또 정합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순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할 텐데, 무모순을 자체는 어떻게 해서 참이라고 인정되는가?

그러나 정합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입장이 우리 지식의 실재와의 연관성을 도외시한다는 점이다. 정합설은 마치 지식이라는 배가 땅(실재)에 닿을 내릴 필요는 없고 오직 물 위에 잘 떠 있기만 하면(정합성)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일상적인 현상들이 실제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니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코딩되고 있는 가상세계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재요 그것만이 실재이다. 이 매트릭스의 세계에서는 버그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정합적일 것이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의 가상공간 안에서의 현상, 즉 인공지능에 의해서 코딩되고 있는 의식의 내용을 진리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매트릭스는 그런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매트릭스는 흥행에 성공하기는커녕 영화로 찍힐 만한 이야기조차 못 되었을 것이다.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에 의해 코딩되고 있는 현상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며 실제 세계는 따로 있음을 깨닫고 그 실세계 속에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이다. 주



인공들과 수많은 등장인물들은 그 실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뇌하고 투쟁하며 자기를 희생한다. 우리의 삶이 해수(海水) (언어-논리적 차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세계라는 흙에 뿌리를 박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부허한 삶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3. 실용주의 진리관

미국의 찰스 퍼스에서 시작되어 듀이와 제임스에 의해서 제 모습을 갖춘 실용주의는 지식의 다른 측면, 인간 삶에서 지식이 담당하는 실제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sup>7)</sup>

퍼스가 처음에 프래그머티즘의 원리를 제안한 것은 진리의 정의로서가 아니라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였다. 퍼스는 사람의 신념이란 행동을 위한 규율임을 지적하면서, 사고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 적합한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 행동이 그 생각의 유일한 의미라는 것이다. 듀이와 제임스가 이를 진리론으로 발전시켰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신념이 진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경험들의 다른 부분들과 만족스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관념을 의지하여 우리 경험의 어떤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사물을 만족

7) 이들이 프래그머티즘을 내놓게 된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그 당시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답도 없고 끝도 없는 소모적 논쟁에 진력이 나 있었다. 그들은 이런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해소시키기를 원했고, 그 한 방법으로 개념들을 명료화하고, 선형적인 원리나 선언을 버리고 실제적인 결과, 효과, 경험 내용에서의 차이에 주목하려고 했다. 또 한 가지는 인간 존재에 있어서 정신이나 지식이 일차성을 차지하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몸, 생물학적 삶, 생존과 번영 등이 일차성을 차지하고 지식은 거기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으며, 단순화하고 힘든 노고를 덜 수 있게 될 때 그 관념은 참이라는 것이다(James 1948: 147,148).

그래서 여기서는 참이란 좋음의 일종이요 좋은 도구로 간주된다(147, 155). 숲에서 길을 잃어 굽주렸을 때 오솔길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길 끝에 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믿고 그 길을 따라 감으로써 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161-162). 이처럼 참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중요한 행위의 도구를 가진 것과 같기 때문에 제임스는 "그것은 참인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도 되고, '그것은 유용한데, 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도 된다. 그 표현은 정확히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162).

제임스는 진리를 유용성과 동일시함으로써 상대주의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다.' 라는 신념은 시험 중에 있는 나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동안에는 나에게 유용하므로 참이지만, 연봉협상을 할 때는 거짓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은 존재한다.'는 신념은 그렇게 믿는 어떤 사람에게 이 신념이 심적 위로를 준다면 그에게는 참이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짓일 것이다. 그런데 제임스는 진리 여부가 일부 경험과의 일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가장 잘 맞느냐의 여부, 즉 우리 경험의 요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장 잘 실현해 주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하기도 한다(157). 신념을 이렇게 전체적인 삶 안에서의 효용성에 의해 평가한다면 진리치가 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제임스는 참과 거짓의 구분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제임스는 비록 미래의 지향점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참인 신념을 인정한다(170-171). 이 절대적으로 참인 신념이란 우리의 모든 임시적인 진리들이 수렴되어 더 이상 그 신념에 시비를 걸 만한 경험이 남지 않은 그런 신념이라고 한다. 이런 신념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동의하고, 절대적으로 완벽한 경험과도 일치하며, 게다가 이런 관념들이 실현될 때에는 그런 관념들이 한꺼번에 실현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인

의 삶의 일시적인 맥락에서는 진리가 임시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지만 인류 전체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불변적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다면 실용주의가 유용성과 구별되는 진리 개념을 정말로 부정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된다. 제임스는 표현상으로는 "참이란 좋음의 일종이요, 좋음과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지만 그의 글은 그가 좋음과는 구별되는 참이라는 이해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sup>8)</sup>

#### 4. 의미론적 진리론

20세기의 수학자이며 논리학자 타르스키(A. Tarski)는 진리의 문제를 의미론적으로 접근하여 '진리의 의미론적 개념'(the semantic conception of truth)을 내놓았다.<sup>9)</sup> 타르스키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진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진리 개념의 실제 의미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한다(Tarski, 1943: 341).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앞에서 인용하였던 다음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진리 규정에서부터 시작한다(342).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반대로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이다." 타르스키는 이 규정에 담겨 있는 직관적 내용에 충실한 정의를 만들어 내는 것

8) 한전숙(1995: 23)은 실용주의가 대응설이나 정합설을 부정한 전혀 새로운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전적인 두 진리론이 실용설에서 인간의 행동, 실천과의 관련에서 새로운 해석을 입으면서 종합되고 있다."고 평한다. 시몬스(Simmons, 2005: 537)도 제임스의 마지막 이야기는 일종의 정합설처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9) 타르스키(Tarski, 1943: 345)는 진리 개념은 의미론적 개념들 중 하나로 파악한다. 그는 의미론을 대략 말해서 언어의 표현들과 그 표현들에 의해서 언급되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해하며, 의미론적 개념들의 전형적인 예로 지칭, 총족, 정의 등을 들고 있다. 타르스키는 진리 개념의 적합한 정의 절차는 이들 의미론적 개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타르스키는 진리의 정리를 내리기 전에 먼저 어떤 진리 정의가 실질적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그리고 이 정의 진리가 역설 없이 적용되기 위해 언어가 갖추어야 할 형식적 올바름의 조건을 제시한다.

### 실질적 적합성의 조건

구체적인 예에서 시작하자. "눈은 희다."가 언제 참이 되는가? 고전적인 진리 개념에 의하면 이 문장은 눈이 흰 때 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이다. 따라서 진리의 정의가 이 개념에 충실하려면 다음의 동치문장을 도출해야 (imply) 한다.

(1) 눈이 흰 때, 그리고 그럴 때에만 "눈은 희다"는 문장은 참이다.

이제 임의의 문장을 'p'로 표기하고, 이 문장의 이름을 'X'로 표기하여 위의 동치 문장을 일반화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T) p이고, 그리고 그럴 때에만 X는 참이다.

이런 형식의 동치문장을 타르스키는 "(T) 형식의 동치문장"이라고 부른다. 위의 (1)과 같은 형식의 문장은 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제 '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모든 (T) 형식의 동치문장들을 주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이 경우 "참"은 실질적으로 적합하게 사용되는 것이고, 만일 어떤 진리 정의에서 (T) 형식의 모든 동치문장들이 도출될 수 있다면 이 정의는 실질적으로 "적합한" 정의라고 한다(Tarski, 1943:344).

### 형식적 올바른 조건

그런데 의미론적으로 닫혀 있는 언어에서는 역설이 발생한다. 의미론적으로 닫혀 있는 언어란 일반적인 표현들 외에 그 표현들의 이름들, 이 언어의 문장들에 적용되는 "참"과 같은 의미론적 용어들, 이런 용어의 바른 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문장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표현들을 그 자체 안에 갖추고 있는 언어를 말한다. 타르스키에 따르면 이렇게 닫혀 있는 언어 안에서는 거짓말쟁이의 역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의 문장을 보자.

*이 책 187면의 이태리체로 쓰여 있는 문장은 거짓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 문장을 's'로 표기하면 위의 "참"의 실질적으로 적합한 용법의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동치문장을 얻게 된다.

이 책 187면의 이태리체로 쓰여 있는 문장이 거짓이고, 그리고 그럴 때에만 's'는 참이다.

그런데 's'는 이 책 187면의 이태리체로 쓰여 있는 문장과 동일하므로 동일률을 이용하여 '이 책 187면의 이태리체로 쓰여 있는 문장'이라는 표현을 "s"로 바꾸면 다음을 얻는다.

's'가 거짓이고, 그리고 그럴 때에만 's'는 참이다.

이것은 명백히 모순이다.

타르스키에 따르면 이런 역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어가 의미론적으로 닫혀 있지 말아야 한다. 즉 대상언어와 메타언어가 구분되어야 한다. 이 때 대상언어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이고, 메타언어는 이 언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이다.<sup>10)</sup>

타르스키는 어떤 언어가 형식적 올바름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할 때 충족(satisfaction)이라는 다른 의미론적 개념을 사용하여 실질적 적합성을 만족시키는 진리의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충족이란 무엇인가? 충족이라는 개념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참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충족이란 임의의 대상과 "문장함수"라고 일컫는 일정한 표현 사이의 관계로서, 주어진 문장함수의 자유 변항을 주어진 대상의 이름으로 바꿀 때 이 문장함수가 참이 되면 그 주어진 대상이 주어진 문장함수를 충족시켰다고 말한다.<sup>11)</sup>

결국 타르스키에 있어서 한 문장의 참 거짓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된다 (Tarski, 1943: 353).

한 문장은 모든 대상에 의해서 충족될 때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타르스키는, 진리 개념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의미론적 개념이 "잘못" 되었으며 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임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논증이 제시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확인한다(356). 여훈근 선생도 실용주의, 정합설을 물리치고 대응설과 함께 이 의미론적 진리론을 수용할 수 있겠다는 말로 진리론에 대한 글을 끝맺음한다(여훈근, 2000: 73, 74). 그만큼 의미론적 진리론은 엄밀하며 명쾌한 설명이라고 하겠다.

10) 대상언어, 메타언어 개념은 상대적이다. 첫 대상언어에 대한 메타언어에 대한 메타언어가 다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메타언어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 메타언어가 대상언어가 된다.

11) 사실 타르스키(Tarski, 1943: 353)는 이 설명의 사용을 철회한다. 지금 그는 충족이란 개념을 진리를 정의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충족은 진리에 의해서 규정되고, 진리는 다시 충족에 의해서 규정되므로 순환논증이 발생한다.

그러나 의미론적 진리론은 엄밀성과 명쾌성을 살린 대신 진리의 중요한 측면들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학문이 무엇인지를 한 철학자가 설명해 준다고 해 보자. 이 철학자는 먼저 '학문이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준다. 그러자 학생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진리에 대한 설명은 이 철학자가 대응설, 정합설, 실용주의, 의미론적 진리설 중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이 철학자의 답변은 다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 학문이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실과 일치하는 명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 ㉡ 학문이란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진리와 정합하는 명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 ㉢ 학문이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삶에 유용한 신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 ㉣ 학문이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대상에 의해서 충족되는 그런 문장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위의 넷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이 네 설명 중 ㉣가 학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적다고 여길 것으로 보인다. 타르스키의 의미론적 진리개념은 참인 문장의 외연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규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진리의 좋은 정의가 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sup>12)</sup>

12) 박정일(1999)은 "과연 그의 진리가 정의는 진리의 어떤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밝히거나 제공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타르스키가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해석하는 언어에서의 참(또는 우리의 전이론적 진리)을 원용하여 해석되는 언어의 참을 규정하거나 정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그의 진리정의를 그것이 특수했던 만큼 우리의 철학적 논의와 바로 그런 특수한 관련을 지닐 뿐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다. 그만큼 타르스키의 진리 정의는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타르스키는 진리의 정의 문제를 의미론적으로 다루었다. 즉 언어적 표현들과

타르스키의 참에 대한 의미론적 정의는 충족이라는 다른 의미론적 개념을 이용하여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 충족이라는 개념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식은 위에서처럼 진리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타르스키가 순환논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둘 중 하나를 원초적인 개념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타르스키가 원초적 개념으로 진리를 선택한다면 진리에 대한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만일 충족을 선택한다면 그는 진리라는 개념을 충족이라는 의미론적 개념으로 대체했을 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III. 진리 개념의 요소들

앞 절에서 네 가지 진리관들은 진리의 정의로서 각각 약점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진리관들을 통해 우리는 진리 개념을 이루고 있는 중요 요소들을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1. 명제의 속성으로서의 진리

진리가 무엇이나, 무엇이 진리가 될 수 있느냐 라는 물음 앞에서 철학자들은 그것은 존재가 아니라 문장이나 명제, 또는 신념이라고 대답한다. 대응설과 정합설은 각각 진리란 실재와 대응하는 신념이나 명제, 또는 기존의 지식과 정합하는 명제라고 답한다. 실용주의는 명제보다는 신념이라는 말을 더 애용한다.

러셀이 진리 개념의 이런 측면을 잘 부각시킨다. 러셀은 "진리와 거짓"이라는 글에서 진리에 대한 바른 규정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그 표현들에 의해서 언급되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진리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이 관계만으로 다 설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 주장한다(Russell, 1967: 69 이하).

첫째로, 진리 이론은 그 반대극, 즉 거짓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한다. 많은 철학자들의 이론이 이 조건을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참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은 거짓 지식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곤란을 겪었다.

둘째로, 만일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거짓도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진리도 있을 수 없다. 진리는 거짓과 동류(同類)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만일 세계가 그저 물질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a world of mere matter) 그런 세계에서는 거짓이란 허용되지 않을 테고, 그러면 그런 세계는 '사실들'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포함하겠지만 진리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는 거짓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실은 진리나 거짓은 믿음이나 진술의 속성인 것이다. ……

셋째로, 그렇지만 우리가 위에서 말한 내용과는 달리 한 신념의 진리나 거짓은 언제나 그 신념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내가 찰스 1세가 교수대 위에서 죽었다고 믿는다면 나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내 믿음만 조사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있는 나의 믿음 안의 어떤 내재적 속성 때문이 아니라 약 250년 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렇다. 만일 내가 찰스 1세는 그의 침대에서 죽었다고 믿는다면 나는 거짓을 믿고 있는 것인데, 내 믿음이 내게 아무리 생생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내가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내 믿음이 거짓이 되는 것을 막아 주지는 못한다. 이번에도 나의 이 믿음이 거짓인 것은 나의 믿음의 어떤 내재적 속성 때문이 아니라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믿음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이 속성들은 이 믿음의 어떤 내재적 속성에 의존하는 속성이 아니라 이 신념이 다른 사물과 맺는 관계에 의존하는 속성인 것이다.

인용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진리는 존재 (또는 사실들) 자체가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인데,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참일 수도 있

고 거짓일 수도 있으며, 이때 우리 믿음의 참, 거짓은 이 존재와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sup>13)</sup> 러셀은 대응론자였으므로 어떤 신념이 참이 되는 것은 그 신념의 내재적 속성이 아니라 다른 사물과 맺는 관계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사실과의 일치성으로 보았다. 정합설론자나 실용주의자라면 이 외재적 관계를 각각 정합이나 실용성으로 볼 것이다.

## 2. 진리의 언어-논리적 성격

진리에 관한 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진리가 상당한 정도로 언어-논리적 성질을 띤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식을 명제의 형태로 파악하며 문장으로 표현한다. 사고 내용을 표현해 줄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언어이다. 이런 사정만으로도 진리는 언어-논리적인 성질을 띤 수밖에 없음을 예상하게 된다.

언어의 중요한 기능이 세계를 표상시켜 주는 것이겠지만 언어가 세계에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문장은 그것이 표현해 주는 사실에 대응하는가? 한 단어는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과 대응하는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가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었다. 『논리-철학 논고』에서 가장 단순한 단어인 이름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단순 대상과 1:1 대응한다. 그러나 실제 언어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 언어에서는 1:1 대응이 아니라 대체로 1:다수로 대응한다. 한 단어는 그 집합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물들을 지칭한다. 예컨대 '사람'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과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

13) 러셀은 진리의 담지자를 믿음으로 보았지만 모어랜드(Moreland & Craig, 2008: 128-129)는 진리성의 담지자의 후보로 문장과 진술, 믿음, 명제를 비교한 끝에 진리성의 담지자는 명제라고 결론을 내린다. 여훈근(2000: 74)은 셋 중 어느 것을 담지자로 보든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문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했다.

요컨대 세계는 기본적으로 개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언어는 기본적으로 보편자인 것이다. 또 각각의 구체적인 사실도 개별자라고 해야 할 텐데, 이 개별자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보편자인 문장과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대응설이 직관적이고 상식적이긴 하지만 한 명제가 사실과 대응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한 단어가 어떤 사물을 대표하는 것이 '대응'이라는 말보다는 '지칭'이라고 하는 의미론적 관계로 더 잘 다루어질 수 있듯이 한 문장과 사실 사이의 관계는 '대응'보다는 사실에 의한 문장(또는 명제)의 '충족'이라는 의미론적 속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추구하는 지식은 어떤 종류인가? 그것은 개별적인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이다. 우리가 말(馬)에 대한 지식 중에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올해 수득상금이 최고인 '명문가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세경마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경마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그렇겠지만) 말 일반에 대한 지식이다. 학자들이 각고면려 끝에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이런 보편적인 진리인 것이다. 이 경우 이 보편적인 진리는 어디에 대응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발생한 사실들에 대응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리는 미래의 말에게도 성립하는 진리이다. 그러면 이 보편지식은 지금까지 발생한 사실과는 일치하지만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그 진위 여부를 모르고 미래의 그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서 참/거짓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편법칙에 대한 지식은 미래에 발생할 사실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식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진리성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보편지식은 사실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과 같은 일반법칙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과 일치하는 보편명제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이 자연법칙도 존재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보편지식은 이런 존재에 대응하

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법칙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자.

### 3. 진리의 실용적 측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 측면은 진리 지식의 효용이다. 어떤 경우에는 진리나 학문의 실용적인 가치는 전혀 무시하고 오직 진리와 학문 자체를 위한 진리와 학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한가로운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실용주의 진리관이 진리의 이런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공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개별적 지식보다 보편적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사실은 진리의 실용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세계 안에서 발생한 사실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가급적으로 포괄적인 보고도 우리의 지식의 한 부분을 이루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다. 전자가 의의를 갖는 것도 주로 후자의 배경 및 근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미래에 대한 지침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보편적 진리 지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진리는 존재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에 앞서서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점은 지식의 주체인 사람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사람도 물론 세상의 일부이지만 그러나 창조주는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면 세상 속에 파묻혀 있을 수만 없고 세상을 초월해야 한다. 세계 속에서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며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을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다스림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스림이 성립하려면 존재에 앞선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세상에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면에서 사람의 지식은 벌써 세계를 초월한다.

#### IV. 작정과 진리

앞 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진리 지식은 일반법칙에 대한 지식이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했는데, 이 일반법칙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개념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여겨진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문은 이렇게 요약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3장 1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그의 뜻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경영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자유롭게 작정하셨고 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실 때 계획 없이 하시지 않고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소요리문답은 이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신다고 가르친다.<sup>14)</sup>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를 알려 주신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알리고 어떤 부분은 사람에게 감추어 두신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 29:29). 이렇게 작정하신 것 중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우리의 지식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념 중 이 작정에 일치하는 것이 진리요, 이 작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를 찾아보자. 십계명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14) 이 글에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논증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이 독단적으로 비칠 수 있겠다. 필자는 모호한 세계관보다 교회의 표준문서들을 사용하는 것이 내용에 있어서 안전하고 토론의 방법으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도 한다.

짓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규범을 정하시고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반포하여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다. 이 법은 모세 이전에도 여전히 사람의 생활 규범이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을 통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를 알리셨다 (롬 1:19-20, 2:14-1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

마찬가지로 창조주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모든 법칙들, 자연법칙들을 포함한 여러 법칙, 원칙들을 정하고 그중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서 참된 지식으로 삼게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소위 빛의 세 가지 법칙을 정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 법을 따라 빛이 작동하게 하셨다. 뉴턴이 발견한 빛의 세 가지 법칙은 아마 하나님의 이 작정의 내용일 것이다. 심계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이나 따라야 할 규범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알려 주시지만(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문) 자연법칙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 예컨대 경험과 추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이 스스로 알아가게 하셨다. 과학자들이 알아낸 법칙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에 비교적 근사하게 맞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결국 그 작정하신 내용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은 발전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고 만다면 이 설명은 이신론의 설명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도 이 법에 매여서 이 법을 따라서만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려면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 개념들은 보편자들인 것으로 보이며,<sup>15)</sup> 이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15) 개념에 대해서는 프린즈(Prinz, 2005)를 참조하라. 프린즈에 따르면 개념의 중요한 기능은 범주화(categorization)라고 하는데, 이는 개념이 보편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대로 우리의 지식이 대체로 보편적 지식이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개별자들에 대해 표상할 때 사람의 사고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자들을 각각으로 다룰 수가 없고 그것을 개념화(범주화)하여 하나로 묶어서 다룰 수밖에 없다. 개념은 말하자면 같은 종류의 수많은 개별자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도록 해 주는 편리한 바구니인 셈이다. 이 보편자인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식은 자연히 보편적인 지식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은 사물들을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다루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물을 대할 때 굳이 보편적 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하지 않고 각 사물을 직접적으로 대하신다.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표현도 그렇거니와 시편 147:4이 이를 잘 나타낸다. 이 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 많은 별들의 수를 세고 그 별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를 수 있다면 다른 사물에게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하나님은 같은 종류의 사물을 만들더라도 각각의 사물마다 아기가자기하게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지 않으시는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일란성 쌍둥이라도 서로 구별되는 개성을 갖는다. 사람은 무엇을 하려면 통일시켜 놓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지만<sup>16)</sup>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것이다.<sup>17)</sup>

16) 이런 현상의 극단적인 예가 '0'과'1' 두 신호만 사용하는 컴퓨터일 것이다. 이 컴퓨터가 오늘날의 인간 생활의 얼마나 많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가!

17) 칼빈(Calvin, 2003: 241)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 이미 정해져 있는 수로(水路)를 따라 강이 흐르도록 명령하시듯이 그런 혼란스런 운동의 일반적인 원리에 불과한 그런 전능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사물들을 일반법을 통해서 다루실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대하신다는 사실은 월터스(Wolters & Goheen, 2007: 50-51)도 지적한다. 그래서 남아공 출신의 기독교 철학자 브뤼머(Brümmmer, 1961: 173-174)는 뒤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간 지식 사이의 간격이 발생함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존재는 항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데 반해 우리의 지식은 (학문적 지식

그렇지만 하나님은 법 없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는다. 시편 93:1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만일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다면 세상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했을 텐데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여 권위를 행사하고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질서 있게 통치하시는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 것 같다. 하나는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질서 있게 통치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104편이 이런 사상을 표현한다(시 104:5-9, 13-15).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렛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들을 위한 거처로 지으셨으며,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여 이 세상에서 살 자격과 의미를 상실한 후에도 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땀으로 괴로움을 더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 만하게 만들고 질서를

---

뿐 아니라 소박한 일상적 지식의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보편적이어서 우리의 지식과 존재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다는 것이다.



유지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1, 22). 그렇게 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경륜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사람이 살 한만 세상으로 다스리실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일정한 법을 사용하여 다스려서 질서를 부여하신다. 게다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세상 통치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이 질서를 사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굳이 일반법칙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으나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법칙의 사용이 절실한 것이다.

이 법은 한 종류가 아니고 다층적이다. 법에는 자연을 통치할 때 쓰는 법(자연법칙)이 있고 사람을 다스릴 때 쓰는 규범이 있다(Wolters & Goheen, 2007: 45). 자연법칙에도 물리적 차원, 화학적 차원, 생물학적 차원 등 여러 차원이 있다.<sup>18)</sup>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상위의 법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위의 법을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상위의 법을 실현시키기 위해 때로는 하위의 법을 초월하거나 또는 역행하여 일하기도 하신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3절, 최낙재, 1999: 143). 후자의 경우 우리는 이를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하위의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법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을 방편으로 사용하여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상위의 법이 행사되어 하나님의 품성이 더 잘 드러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마 9:8 등).

죄를 범한 다윗을 처리하신 내용이 상위의 법을 적용하기 위해 하위의 법이

---

18) 도어베르트(Dooyeweerd, 1955)가 이를 15가지로 나눈 것은 기독교 철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보된 한 예라고 생각된다. 다윗은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였고, 밧세바의 수태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자기 부하를 시켜 우리아를 전사하도록 만들었다. 전자는 유부녀 강간에 해당하고 후자는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므로 모세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사형을 받았어야 마땅했다(신 22:13 이하, 민 30:30,31). 그러나 다윗은 사형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이를 시행할 다윗보다 높은 권력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와 이렇게 전하였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때 하나님은 신명기 11:13 이하와 민수기 30:30, 31에 적시된 법보다 상위의 법을 다윗에게 적용하셨음이 틀림없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들 중 계시된 것, 예컨대 십계명이나 자연법칙 같은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만일 이 법들이 절대적인 법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이야기대로 이 법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 법을 알았다고 해서 진리를 알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법이 언제 어떤 식으로 행사되는가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sup>19)</sup>

19) 법만 알고 법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일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로서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예컨대 이들은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일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꼼꼼하게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씨 뿌리는 것, 거두는 것, 안식일에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글자 수, 바느질 땀수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2세기 초의 어떤 문서에는 이런 식의 금령이 30여 가지가 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런 논법으로 당신의 제자들의 행위를 문제 삼는 그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는 말로 응대하였다(막 2:27, 28). 그들은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몰랐던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법

## V. 진리이신 하나님

성경은 진리 문제를 아주 직설적으로 다룬다. 이런 구절들의 내용을 음미하지 않고 이 글을 마친다면 미완이 되고 말 것이다. 먼저 성경 사전을 통해 성경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들어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런 후 진리와 관련된 성경의 대표적인 몇 구절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런 구절들이 가르침을 따를 때 진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이 결론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의 저자 아더 홈즈의 입장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한다.

『새로운 성경사전』(*New Bible Dictionary*)의 팔머(Palmer, 1982: 1225)에 따르면 '진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emet'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실에 관한 지식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일반적인 용례는 인격에 대해 적용되어 실존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한다.<sup>20)</sup> 따라서 영어 번역본들이 'emet'를 종종 'faithfulness'로 번역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 구약은 이처럼 진리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발생한 어떤 사실에서 구하는 대신 신뢰할 만한 인격에서 구한다는 것이다. 이 신뢰성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진다(시 31:5, 렘 10:10).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므로 그가 내리는 판단과(시 96:13) 그가 요구하는 계명(시 119:89), 혹은 하시는 말씀은(시 25:5) 진리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므로 그를 섬기는 그의 백성도 하나님께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시 51:6), 또 이웃에 대해 진실해야 한다(출 20:16).

---

의 저자인 하나님은 빼 놓고 율법만 따졌던 것이다.

20) 신명기 17:4: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하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이 전자의 예라면 창세기 42: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의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진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그리스어는 'alētheia'인데 팔머는 이 단어의 성경 용례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인격성의 믿음직함(dependability), 진실성(truthfulness), 정직(uprightness)을 뜻하며, 이런 성질은 하나님께도 적용되고(롬 15:8) 사람에게도 적용된다(엡 5:9). 팔머는 이런 용법이 신약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라는 사상은 신약 전반에 깔려 있다고 한다. 둘째로는 거짓이나 결여의 반대로서 실재적(real)이고 완전한(complete)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런 의미의 진리 중 가장 대표적인 진리는 복음의 진리이다(갈 2:5, 엡 1:13). 셋째는 모형과 대비된 실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히 9:23, 24). 한편 홈즈(Holmes, 1988)는 『새로운 신학사전』(*New Dictionary of Theology*)에서 구약의 'emet'의 용법을 더 잘 이어받은 신약의 단어는 'pistos'라고 지적한다. 또한 'alētheia'가 위의 두 번째의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의 진리 개념의 반대는 실수(error)가 아니라 거짓말, 또는 속임이라고 설명한다(롬 1:25, 엡 4:25). 이를 종합하자면 성경에서는 진리 개념을 명제나 지식에게도 적용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두 사전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말하고 따라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제 진리에 대해 직설적으로 가르치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몇 개만 살펴보자.<sup>21)</sup>

21) 필자는 성경을 주해할 만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임을 고백한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교육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고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논의에 필요한 정도로 시도해 본다. 앞 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곳 성경 해석에서도 필자는 독립개신교회 강변교회의 최낙재 목사와 정병길 목사의 강설에 크게 의존해 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돌려야 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요한복음 14:6일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구속을 위한 죽음과 승천의 이별을 앞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자 도마가 자기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그 길도 모른다고 답변할 때에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적지와 아울러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즉 그 중보자라는 것이다. 이때에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 길일 뿐 아니라 '그 진리'이기도 하고 '그 생명'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다. 여기 진리란 물론 하나님께 이르는 방도 즉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 그런데 '진리'를 명사로 취하여 진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표현 방식이 눈길을 끈다.

이런 표현 방식은 같은 복음서 8:12 이하의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도 나타난다. 이때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그런데 조금 후에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주체가 진리에서 아들로 바뀌어 표현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8:36) 그러면 여기 32절의 '진리'는 36의 '아들'과 같은 것이 아닌가?

레온 모리스(Morris, 1971: 180-181)는 요한복음 14:6에 대한 주해에서 요한 사도의 진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수와 복음사자들은 때때로 "진리"를 객관적인 실재와의 믿을 만한 일치(reliable correspondence)라는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제4복음서가 좀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의심 심장한 의미는 하나님의 실재 속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언급한다. 이런 의미의 진리는 서론(1:17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라.”)에서 도입되었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한 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8:32)라는 말에서 드러난다. 지금 이 문맥은 (14:6)은 예수를 성육신한 신적 진리로 규정(identify)하고 있으며, 예수와 빌라도 사이의 대화는 진리의 일상적인 의미와 참으로 실재적인 것(what is really real)을 의미하는 뜻 깊은 요한복음의 의미를 병립시키고 있다(18:37-38). 이 의미는 인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유일한 통로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진리이다. 따라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형식적인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진리를 아는 것은 전체로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모리스의 주해를 따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런 그의 제자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는 것이 여기서 이미 충분히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sup>22)</sup>

그러나 그리스도는 진리를 먼저 성부에게 돌린다. 그리스도는 철저히 아버지에게 의존적이다. 거짓의 아버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을 말하지만(8:44)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8:38).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은(8:45) 그가 참이신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았고(7:28) 그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며(8:26)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5:19).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시라.' 하는 가르침이 또 어디에 있는가? 구약에서 이

22) 이처럼 추상적인 것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동일시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요한복음 1:1이다. 요한 사도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진리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예가 출애굽기 34:5,6이다.<sup>23)</sup>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요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반포하여 알리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라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와 이름을 반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라.'" 우리말 성경에 '진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emet'이다(Strong, 1890:14).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시내 산에 이르게 하고 십계명으로 그들과 언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부탁하였다(출 20:19).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40일을 거기에 있었다(출 24:12-18).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자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였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패에 진노하여 이들을 진멸하고 그대신 모세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뜻을 표명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구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뜻을 거두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23)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14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그리스도에게 진리를 돌리는데, 여러 주석가들이 이 구절은 바로 이 출애굽기 34:5,6을 받아서 하는 말임을 지적한다(Lincoln, 2005: 106; Carson, 1991: 129; Bruce, 1983: 41, 42).

이때 이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친히 선언하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34:5,6이다.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민수기 23: 19에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잘 표현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셨고(창 17:1 이하)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I am that I am)'라고 알리시면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인 하나님은(계 21:6) 친히 하신 언약에 충실하시되 심지어는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배약하는 경우에라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신실함은 다른 한 속성과 함께 발휘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우상 숭배로 언약의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언약의 조건에 따라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한다(창 15:10 참조). 그런데도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며 다 성취하겠다고 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라."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34:5, 6절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이 신실하다는 것인데,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만일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라면 전자에서 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성립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언약을 체결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



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배반하고 나갈 때에도 그 언약에 충실하여 언약의 내용이 역사에 그대로 실현되게 하셨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진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나 원칙, 사실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언한 언약에 충실하심으로써 진리를 성립시키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진리인지,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진리가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가 해석한 구절들이 말하는 진리는 복음의 진리이다. 요한복음 14:6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진리라고 할 때의 그 진리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를 성취하셔서 진리를 이루신다는 출애굽기 34장의 가르침도 아브라함의 언약, 즉 복음이었다. 그런데 이 논법, 즉 하나님이 시초에 언약을 주권적으로 맺을 뿐 아니라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이 사실로 성립하게 하신다는 이 논법은 모든 진리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무에서 말씀으로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영원 전에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작정을 하셨으며 그 작정에 영원히 충실하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진리에 대해 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이다.'라는 필자의 결론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아더 홈즈(Holmes, 2000)는 뒤에서 이미 자신의 책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에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천명하였다. 홈즈(Holmes, 2000: 45)가 '모든 진리는 어디서 발견되든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원하고 전지하신 창조주'이고 따라서 '그의 창조적 지혜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규범'이기 때문이다(19). 흠즈는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는 이 전통을 초대교회 교부들에게서 발견하며, 또 '모든 인생과 역사가 선하고 지혜롭고 전능한 창조주에 의해 인식되고 지배된다는 구약성경의 사고'에 함축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라고 한다(18-26).

흠즈는 이 대 원칙에서 다음의 두 가지가 귀결된다고 본다. 첫째,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라면 진리 그 자체는 절대적이고 불변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진리는 플라톤의 형상들처럼 자율적인 것도 아니고, 계몽주의 인식론에서처럼 초연하게 '인식론적 객관성'으로 접근되어야 할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라는 것이다. 흠즈(Holmes, 2000: 47, 48)는 진리의 인격적 특성을 우선 명제의 진리성이 화자의 신실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메시지는 진리인데, 그것은 그들이 신실한 증인들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궁극적 좌소는 '그 말씀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성에 있다'. 흠즈는 또 진리의 인격적 특성을 진리를 아는 것이 인격적 참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철학자들은 에피스테메(epistēmē)나 테오리아(theōria)와 같은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이나 이론을 표현하는 명사를 즐겨 사용하지만 성경 기자들이 인식의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노스코(ginōskō), 에피기노스코(epiginōskō)와 같은 동사를 더 즐겨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 안다는 것은 그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시키고 이를 행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sup>24)</sup>

하나님의 만물의 영원한 창조주이므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된다는 흠즈의 단언은 필자의 '하나님이 진리이다.'라는 결론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본다. 그런데 흠즈가 진리에 인격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필자와 다르다. 흠즈

24) 흠즈의 책 8장의 제목은 '진리이신 그리스도(Christ the Truth)'이다. 그러나 3장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흠즈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성경적 세계관의 통일시키는 초점이므로 기독교인들은 세계관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는 화자의 신실성이 발언 내용의 진리성을 보장한다는 점, 진리를 아는 것은 인격적 참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진리의 인격적 특성을 찾았지만 필자는 진리 자체의 성립이 하나님의 인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하나님은 물론 정직한 분이셔서 말씀하실 때나 행하실 때 진실하시다. 이 점에서 흠즈와 필자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신실하신가 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에 신실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세운 작정에 신실하시다. 즉 하나님 자신에 신실하시다. 흠즈가 후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후자를 덜 강조하였고 명확하게 표명하지 못했다.<sup>25)</sup>

25) 철학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추상적인 것을 인격과 동일시하는 표현은 어색하다. 그런데 성경, 특히 요한 사도의 저작은 이런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요한은 요한일서 4:8과 4:16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요한복음 1:1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8:12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1:25에서는 '나는 생명이라.'고 한다. 요한의 이런 어법의 요점이 무엇일까? 어쭙잖은 일이겠으나 필자가 설명을 시도해 본다. 사랑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일 4:7)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아들을 사랑했고(요 17:23, 24) 아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요 15:10).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고(요일 4:9)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요일 3:16). 하나님이 먼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요일 4:19-5:1).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요일 4:12).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요약하여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X이다.'라는 표현의 요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X가 성립하지도 않고 알려질 수도 없고 실현될 수도 없고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서 11:36의 바울의 송영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가 이런 표현의 요점이라고 생각된다.

## VI. 나가는 말

'하나님이 진리이다.'라는 우리의 결론이 인식론 논의에 어떤 결과를 끼칠 것인가? 우선 앞의 방법론이 달라질 것이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진리라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은 인격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람이 알고 있는 참된 지식은 이것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코넬리우스 반틸(Van Til, 1999: 60)과 같이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유비적(analogical)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이 필자의 결론이 설득력을 갖으려면 이 외에도 설명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의 논의는 겨우 출발이지 종결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리관과 비교하기 위해 이 논문 앞부분에서 제시했던 대응설, 정합설, 실용주의, 의미론적 진리론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진리관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진리의 정의로서 실패했다. 또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우리의 진리 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대응설이 그중 가장 낫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의 신념이 참이 되기 위해서 대응해야 할 것은 세계나 그 속의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의 지식 또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라는 이 큰 원칙을 전제해 놓는다면 부분적인 진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의미에서 이 정의들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sup>26)</sup> 성경도 진리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지만 파생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람의 지식에게도 돌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에서 논의의 편의

26) 논리학 책들은 정의(definition)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문제인 것처럼 정의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정의의 종류에 대해서는 Ableson(1967)과 김영진(2000) 참조.

를 위하여 그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이다.'라는 주장이 함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겠다.

첫째,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면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7:3을 따라 영생을 얻은 자 곧 신자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모든 진리를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창조자가 정하신 대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다. 다만 진리의 저자를 알게 된 만큼 그는 진리를 획득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잠 1:7, 9:10).

또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해서 성경의 명문이나 성경의 명문으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된 결론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바르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디모데전서 4:4의 원칙은 여기서도 확고하게 견지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 주신 의도대로 특별계시는 특별계시대로, 일반계시는 일반계시대로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작성하신 내용이 우리의 참된 지식의 내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을 직접 알 수가 없다. 눈과 귀를 부지런히 사용하고 논리를 치밀하게 따져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진 (2000), "정의에 대한 분석철학적 접근," 『철학적 분석』, 창간호.  
 박정일 (1999), "열린 해석과 타르스키의 진리 정의," 『철학』, 제61집, 165-194.  
 여훈근 (2000), 『논리철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경직 (2004), "기독교 진리론의 모색", 『신앙과 학문』 9, 241-271.

최낙재 (1999), 『소요리문답 강해』 I,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한전숙 (1995), "진리란 무엇인가", 김창호 편,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가』, 서울: 웅진출판사.

Ableson, Raziell (1967), "Definition," Donald M. ed. (2006),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 Vol. 2, Thomson Gale.

Aristotle (1941), *The Metaphysics of Aristotle*, ed, Richard Mckeon, tr. W. D. Ross, New York: Random House.

Brümmer, Vincent (1961), *Transcendental Criticism and Christian Philosophy*, Franeker: Wever.

Bruce, F. F. (1983),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Wm. B. Eerdmans.

Calvin, John (2003),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상,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Dooyeweerd, Herman, tr. by David H. Freeman and H. De Jongste (1955),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v. II,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Holmes, Arthur F. (1983), *All Truth Is God's Truth*, Grand Rapids: Wm. B. Eerdmans 서원모 역 (2000),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크리스찬다이제스트.

Holmes, A. F. (1988), "Truth," Ferguson, Sinclair B. ed. (1988), *New Dictionary of Theology*, Illinois, IVP.

James, William (1948), *Essays in Pragmatism*, N.Y.:Hafner Publishing Co.,

Lincoln, Andrew (2005),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John*, N.Y.: Hendrick Publishers.

- Moreland, J. P. and William Lane Craig (2003),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a Christian Worldview*, Illinois: IVP, 류의근 역(2008), 『인식론』, 서울: CLC.
- Morris, Leon (1971),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Wm. B. Eerdmans.
- Palmer, F. H. (1982), "Truth," J. D. Douglas, ed. (1982), Publishers Inc..
- Prinz, Jesse (2005), "Concepts," M. Donald ed. (2006),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 Vol. 2, Thomson Gale.
- Russell, Bertrand (1967),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 Simmons, Keith (2005), "Truth," in Borchert, Donald M. ed. (2006),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 Vol. 9, Thomson.
- Strong, Jame (1890), *A Concise Dictionary of the Words in The Hebrew Bible*, Abingdon.
- Strong, Jame (1980),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Abingdon.
- Tarski, Alfred (1943), "The Semantic Conception of Truth and the Foundations of Semantic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 341-375.
- Van Til, Cornelius (1955), *The Defense of the Faith*, 신국원 역 (1999), 『변증학』, CLC.
- Wittgenstein (1922),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 by Ogen and Richards, Rutledge & Kegan Paul.
- Wolters, Albert M. and Michael W. Goheen (1985), *Creation Regained* 2nd ed., Wm. B. Eerdmans, 양성만·홍병룡 역 (2007), 『창조 타락 구속』,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ABSTRACT

### A Christian Concept of Truth

Songman Yang(Woosuk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want to compare philosophers' definitions of truth and a biblical concept of truth, and highligh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latter.

In order to do so I explain the contents of the chief definitions of truth of philosophers and their defects. Usually universal knowledge is more valuable than particular knowledge on particulars. This fact seems to demand general laws to exist in themselves. General laws can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the eternal Decrees of God. But God uses laws at his will, not that laws rule God. So we must know the personal God who uses the laws at his will in order to be said to know the laws in its fullness.

Bible has many verses which deal directly the problem of truth, I examine some of those verses and try to find out in which sense we can say that God is the truth. If my exposition is valid one, it seems that we must abandon the philosophers' definitions of truth or limit their usage under some conditions.

Key Words: Truth, Definition of Truth, Knowledge of laws,  
Personality of Truth, Christian Concept of Truth